



中日 갈등에
한국 찾는 유커
유통가 반색
L1

metro®

Life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세포치료제
개발지원 가동
L2



“차량정비 경험, 자산으로… 노하우 쌓아 미래의 길 넓힐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조 환 익 자동차정비공

국내에서 자동차는 명실상부한 주요 교통수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차량 등록 대수는 2640만대, 지난해 국내 차량 면허 소지자는 3550만명이었다. 국민 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성인 5명 중 4명은 차량 면허를 취득한 셈이다. 철도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을 벗어나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의 영역에서 자동차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국내의 차량 등록 대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자동차를 정비하는 ‘차량 정비공’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높은 노동강도를 이유로 젊은 세대가 차량 정비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현장에선 40~50대의 고참 정비공들이 주축을 이룬다.

올해로 만 4년의 경력을 갖춘 조환익의 자동차정비공(21)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젊은 차량 정비공이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의 도제 프로그램으로 경력을 시작했고,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대부분의 국내 차량은 물론, 수입차나 전기차도 정비한 경험이 있다.

그는 고등학생 기술공들이 대부분 대학 진학이나 공장으로의 취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분명 보람이 있는 일이지만, 갓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배우기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비슷한 시기에 현장에 나왔던 친구 중에서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직종이나 자체적인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비소에 비슷한 또래는 현장에 좀처럼 없지만, 선배 정비공들과 일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십 수 년에 달하는 경력을 갖춘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먼 훗날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 GM대우 경기 남동서비스센터 앞에서 만난 조환익의 차량 정비공.

2 조환익의 정비공은 자신의 취미가 여행이라고 밝혔다. 일찍부터 직업 활동을 시작한 만큼,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여유를 갖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 ‘경험’이 곧 능력

차량 정비소의 업무는 다양하다. 경정비 부서에서는 엔진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액 등 차량 내 소모품을 교체하며, 정비 부서에서는 법정 자동차 검사와 부품 교체를 담당한다. 판금·도장 부서에서는 차량의 외형적 파손이나 도색을 담당하며, 사고 차량의 전반적인 수리나 타이어 교체도 일반적으로는 차량 정비소에서 진행된다.

각각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정비공들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조 정비공이 주로 담당하는 직무는 사고 차량 정비다. 사고가 발생해 정비소로 인계된 차량을 운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긴급 수리하고,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이상 여부를 파악한다.

그는 “좋은 정비공은 차량을 살피면서 운전자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나 평소에 차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대략 알 수 있다. 차량에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차량도 별문제 없이 깨끗이 관리하지만, 관리에 무관심한 사람은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차량도 금세 여러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비가 안 된 차량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오작동하거나 멈춰설 수 있고,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하다. 정비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정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정비공은 차량 정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드나 차량별로 부품의 배치가 다르고, 같은 계열의 차량이라도 출시 시기별로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같



고등학교 2학년, 정비공 경력 시작 힘들지만, 현장에서 배울 점 많아

車정비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 매뉴얼보다 상황별 능숙함 필요

사회초년, 고참들과 세대간 갈등도 일 배우며 도움 주고받는 사이로

일찍 사회 나왔지만 하고픈일 많아 업무 외에도 다양한 경험 쌓고 싶어

은 차량이라도 다른 엔진 시스템을 탑재한 경우가 찾아졌다. 경험이 많을수록 정비나 수리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그는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은 꼼꼼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자잘한 부품들은 매뉴얼이 모든 상황을 상정해두지 못한 경우도 자주 있다. 경험이 곧 능숙함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험 많은 정비공들은 잠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수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 아직은 ‘젊은 정비공’

차량정비소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간다. 간단한 급류부터, 다양한 사고로 운전 불능이 된 차량까지 정비소로 몰려든다. 차량을 살펴본 뒤 보험사와 보험을 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온종일 다양한 차량을 살펴보면서 퇴근 시간이 된다. 낮에 끝내지 못한 일을 마치겠다고 야근에 나서는 정비공도 여럿이다.

조 정비공은 자신의 직업에서 적성을 찾았지만, 일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고참들과 적게는 10살, 많게는 20~30살의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세대 차이로 갈등이 자주 있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게 되어 무척 원만한 사이가 됐다”고 했다.

나이에 비해 많은 경력을 쌓았지만, 조 정비공은 아직 자신의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자평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비슷한 또래들이 꿈꾸는 것처럼 유투버를 꿈꿨던 적이 있다. 지금 하는 일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지만, 앞으로 살면서 업무 외 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군 복무를 마치고, 일하던 곳에서 경험을 더 쌓고 싶다. 그 뒤에는 차량을 생산하는 생산직이나 다른 회사의 정비소에서도 일해보고 싶다. 또래 친구들과 여행도 떠나고, 나중에는 나만의 특별한 자동차를 마련해 사람들에게 뽐내보고도 싶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기적의 동점 골 등 2골…LAFC는 승부차기패배 /사진 뉴시스

▲“연출적 타협 안 돼”…옥주현, 콘서트 2주 남기고 연기

▲5시간40분 바그너 대작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국내 초연

▲신구대, e스포츠 대학리그 LoL 종목 2연패 달성

▲유희열 내세운 ‘나우 유 씨 미3’, 100만 관객 돌파 앞뒤

▲봅슬레이 2인승 김진수팀 ‘올림픽 트랙’서 열린 첫 월드컵 4위